

2023년 1월 15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 주일



전담신부 : <공석>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퀵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 월]



복음화 지향 : 교육자들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렵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상단 우측이미지 클릭)

오늘 전례 연중 제2주일인 오늘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3.5-6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화답송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ㄴ-9.10 (◎ 8ㄴ과 9ㄱ)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시작입니다. 1,1-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14.12 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4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영성체 후 묵상

이 차가운 계절에 자칫하면 우리는 자신의 처지만을 돌보는 데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외롭고 가난한 이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몸을 떨며 그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굳어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의 훈기로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고 싸매어 주는 삶이야말로, 어린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에 초대받은 우리 신앙인에게 합당한 몫일 것입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 ♣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치우는 삶

이사야 예언자는 유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합니다(49,3-5). 주님께서서 유배를 통해 죄의 대가를 다 치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어 새로운 왕국을 이루실 것이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리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런 희망 속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고난 받는 종'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십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 받는 주님의 종'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구원사의 한몫을 맡은 존재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고, 선택한 이, 그리고 영을 받아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이사 42,1-5).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불경한 이를 벌하고 심판하는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대속자인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 '파스카 제물'(탈출 1) 또는 '속죄 제물'(레위 16)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힘없이 살을 취하시고, 사회적 약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는 파격적 행보로 인한 비난과 배척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이웃의 죄를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대신 짐으로써' 치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자매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암덩어리와 같은 엄청난 죄악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부끄럽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의 몰상식과 후안무치의 행태들로 어두워진 이 시대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심도 수치심도 잃어버린 채 악행을 저지르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방황하며 영혼과 삶이 황폐해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어 예수님 위에 머무셨음"(요한 1,32)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영안에 살아가려면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순수하며, 사랑과 투명성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치우고 어둠을 밝히는 사람은 증오와 복수심, 불신과 폭력을 버리고 비둘기와 같은 영의 정신으로 세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연중 제 2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천주의 어린 양을 보라.'
디에릭 부츠 작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2023년 구정 공소예절

우리 공동체에서는 1월 22일(주일) 공소예절을 통해 위령을 기억하고 연령들 위한 분향 및 연도를 예식 30분 전부터 바칩니다.



시드니 성당 말씀나눔 교육 참가자 모집

말씀나눔 교육에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을 모집 중입니다. (현재 신청인원 : 4명)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구성되는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3월경 시작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문의 및 접수 : 주정자 루치아)



공소예절

공소(公所)는 본당보다 작은 단위 교회로 한국 천주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뤄진 곳입니다. 본당과 달리 사제가 상주하지 않아 미사 집전을 할 수 없으며, 공소 교우들은 공소예절을 행합니다. 공소 예식은 시작 예식, 말씀 전례, 마침 예식으로 크게 나뉘집니다. 시작 예식에서는 입당송, 참회 그리고 본 기도문을 올립니다. 일반 미사와 같이 제 1 독서, 제 2 독서와 복음을 봉독하며 묵상 글을 읽습니다. 이어 신앙고백과 찬미 기도로 이어지며 주님의 기도와 마침 예식으로 공소예식을 끝맺습니다.

※ 공소예절 기간동안(~1월 29일)에는 미사예물 및 봉헌금은 없습니다. 이 기간 중 봉헌금 대신 공동체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부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기부가 가능합니다.

- ☞ 미사 전 교무금 봉투에 '봉헌금'이라고 표기 후 교무금함(성전 입구)에 넣으시거나, 공동체 계좌로 'Offering'이라고 메모를 남기시고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 교무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온라인.교무금함(성전 입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지 펠 추기경 선종

조지 펠 (George Pell) 추기경님께서 1월 10일 화요일 저녁 바티칸에서 81세를 일기로 선종하셨습니다.

조지 펠 추기경 일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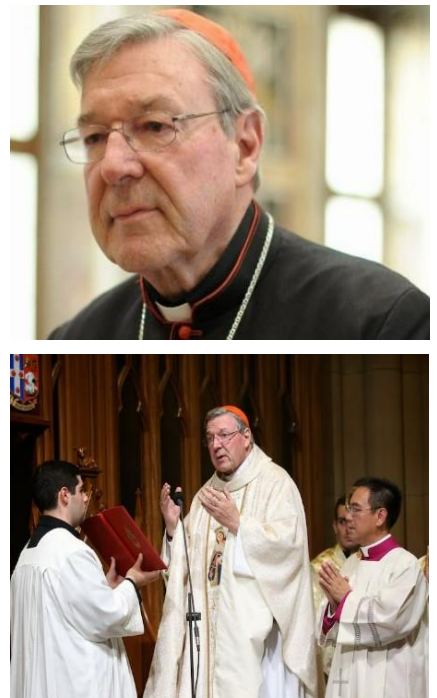
펠 추기경님 1941년 6월 8일 벨러렛 태생으로 1966년 12월 16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1987년에 호주 멜번교구에 보좌주교로 서임되었습니다.

1996년 7월 16일에는 멜버른 대교구장으로 서임되었으며, 이후 2001년 3월 26일에 시드니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년 뒤인 2003년에는 교황 바오로 2세로부터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교황청의 금융과 행정을 감독할 경제사무국 초대 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제직이라는 소명을 사시며 교회를 위해 생의 대부분을 헌신하신 조지 펠 추기경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버라 교구 조지 펠 추기경 헌정글:

<https://www.catholicvoice.org.au/george-cardinal-pell-1941-2023/>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 -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 (이사 1,17)

2023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우리는 한마음으로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일치에 대한 많은 진전을 이뤘고 이러한 성과를 이루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봅시다. 선을 행하고, 공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담화문 전문 보기 [링크](#)]

일치기도주간 8일 간의 기도	
제1일	윤은 일을 하도록 배우기
제2일	공정을 실천하는 것을...
제3일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겸손하게 견어라
제4일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제5일	그 땅의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기
제6일	이 가장 작은 이들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제7일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제8일	진료를 되찾아 주는 정의

| 연중 제 2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30

착한 온도로 건강하게 “겨울 19도, 여름 28도”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16

겨울철 난방온도 2℃ 낮추기
 → 11,90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SBS News

조지 펠 추기경 선종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조지 펠 추기경이 걸어온 길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21 강]

프리바의 샘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불땀과 구리땀
민수기 3 부 | 20,14-36 장

천주교제주교구

시노달리타스와 식별교육

문창우 비오 주교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공소예절 참여자수

1 월 1 일	성인 64 아이 24	1 월 8 일	성인 22 아이 5
---------	-------------	---------	------------

□ 우리들의 정성 (1 월 7 일(토)~13 일(금))

구민식	김요한	안영규	양홍석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황병욱							
교무금 \$425 (9 가정)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1 월 15 일, 연중 제 2 주일)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1 월 22 일,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5 일) 마르코반 → (22 일) 마태오반 → (29 일) 사목회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매월 첫째주 식사): (15 일) 다과 (사목회) → (22 일) 식사 (공동체 나눔)
- ♥ 구민식 안토니오(루카반, 17 일), 김민영 로셀리나(마르코반), 장운선 로셀리나(루카반, 17 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Catholic Voice 12 월호

[https://www.catholicvoice.org.au/
current-edition/](https://www.catholicvoice.org.au/current-edition/)



♥ 베네딕토 16 세 전임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기도

[https://www.cbck.or.kr/Notice/20221233
?gb=K1200](https://www.cbck.or.kr/Notice/20221233?gb=K1200)

